

## 21세기식 여성 영웅 서사 - 정세라의 『보건교사 안은영』을 중심으로

정 하 닉\*

### 요약

이 논문은 정세라의 『보건교사 안은영』을 여성 영웅 서사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이다. 『보건교사 안은영』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욕망의 흔적인 젤리를 보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건교사 안은영이 그의 조력자인 한문교사 흥인표와 함께 학교와 학생들을 지켜나가는 이야기이다. 안은영은 자신의 선택을 따라 무조신(巫祖神)이 되어 많은 영혼을 도왔던 바리데기라는 여성 영웅의 계보를 잇는 영웅이다. 안은영은 무조신이 된 바리데기처럼 친절함으로 나쁜 것을 이기는 삶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소수자(여성, 보건교사)이면서 너른 이해심과 공감으로 타인을 수용하는 여성 영웅 안은영은 조력자(장애인에 한문교사인 소수자)와 함께 학교라는 모험의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보이는 친절함이 기반이 된 것이다. 영웅인 은영은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은 학교 안에서 젤리와 싸우고 학생들을 치유하고 돌보며, 타인과 연대하며 그 공동체의 선을 추구한다. 이들이 학교에서 마주한 문제들은 여느 청소년들의 문제에서부터 학교를 이용하려는 욕망들, 자본주의적 욕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영웅의 모험 속에 현실 사회에 대한 정치적 무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은영의 모험은 어떤 초자연적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속물적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과 학교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강한 욕망과의 싸움이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친절함이 결국 상처입은 영혼을 위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현대의 영웅인 보건교사 안은영은 바리데기로부터 시작된 한국형 여성 영웅 서사의 계보를 잇는다.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초빙교수

주제어: 『보건교사 안은영』, 여성 영웅 서사, 바리데기, 무조신(巫祖神), 소수자, 친절, 치유와 돌봄, 연대

목차

1. 현대판 영웅과 영웅 서사
2. 바리데기의 후예, 보건교사인 여성 영웅
3. 여성 영웅의 과업 - 치유와 돌봄, 공감과 연대
4. 자본주의적 욕망 대 공공선의 추구
5. 계속되는 영웅의 과업

## 1. 현대판 영웅과 영웅 서사

‘영웅(英雄)’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말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나 민담 속에는 일반인과는 다른 초인적인 능력이나 용기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한다. 조지프 캠벨은 신화와 인간의 심연에 내재한 무의식에서 영웅과 그의 모험의 패턴을 발견하였는데, 캠벨은 영웅이란 무언가 결핍된 그 혹은 그의 세계에서 앞에 놓인 어려움과 싸워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예외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한다.<sup>1)</sup> 캠벨은 전통적인 영웅 서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영웅의 여정”에는 통과제의에 나타나는 ‘출발(분리, departure)→입문(initiation)→귀환(return)’이라는 원형적 구조가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모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다.<sup>2)</sup> 즉 영웅의 모험이란, 일반적으로는 결핍을 인식한 사람이 모험에 뛰어들어 일반

1) 조지프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18, 30-31면.

2) 위의 책, 42면.

“영웅은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로 떠나고 여기에서 엄청난 세력과 만나고, 결국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 신비스러운 모험에서,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얻어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다.”(같은 책, 43면)

인이 상상하지 못할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 혹은 불사약 같은 것을 찾아 헤매고 돌아오는 것이다.<sup>3)</sup> 영웅의 모험 서사에는 죽음과 재생의 경험이 필요한데, 이 여행을 마쳐야 한 인간은 전보다 풍부하고 성숙한 조건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sup>4)</sup> 자신의 내부나 타인의 세계로 여행하는 자인 영웅이<sup>5)</sup> 모험을 통해 자신의 숙명을 대면할 때 비로소 진짜 자기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영웅 서사는 정체성을 찾는 서사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영웅담 속 영웅 역시 신화 속 영웅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지닌 능력을 발휘해 세계와 대결해 승리를 거두는 자다.<sup>6)</sup> 길가메시나 헤라클레스가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인 것처럼, 전통적인 영웅담 속 주인공이나 바리데기 같은 우리나라 전통 속 영웅들 역시 고귀한 혈통을 지닌 존재들이다. ‘영웅’은 “비범한 능력, 강고한 의지, 공공선예의 추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영웅의 능력치는 독자가 그 인물을 영웅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지만,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악한 일을 한다면 그는 영웅이 될 수 없으므로, 영웅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

3)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이윤기 역, 『신화의 힘』, 21세기북스, 2020, 230면.

4) 위의 책, 230면.

크리스토퍼 보글러는 캠벨의 영웅의 여정을 대중문화의 서사에 적용하여 캠벨의 구조를 간략화한 ‘영웅의 여행의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분리→입문→귀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캠벨이 제시한 세부적인 17단계가 12단계로 줄어 있다. 보글러는 “모든 스토리텔러는 신화적 패턴을 자신의 목적과 특정 문화의 필요에 맞게 고쳐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3막 구조가 대중서사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크리스토퍼 보글러, 함춘성 역,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제3판, 비즈앤비즈, 2022, 59-60면.)

5) 크리스토퍼 보글러, 앞의 책, 45면.

6)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8, 283면.

조동일은 영웅소설은 “(가) 고귀한 血統을 지니고 태어났다. (나) 비정상적으로 孕胎되었거나 출생했다. (다)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라) 어려서 棄兒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마) 救出·養育者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바)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사)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영웅의 일생’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다.(같은 책, 288-289면.)

지를 지닌 인물이어야만 한다.<sup>7)</sup> 여기에서 영웅의 원형에 가까운 헤라클레스와 바리테기를 떠올릴 수 있다. 그들은 범인(凡人)과는 다른 능력·공공선에의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현대판 영웅의 모습은 대중문화 속 슈퍼히어로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슈퍼히어로는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남들과는 다른 능력을 ‘장착’하고 악인들에 맞서는 이들을 말한다.<sup>8)</sup> 영웅은 붕괴된 현재 상태보다는 그것을 재생하는 원리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존재이지만,<sup>9)</sup> 영웅 혹은 슈퍼히어로가 헤라클레스나 슈퍼맨처럼 비범한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선의 추구라는 점에서, “자기 삶을 자기보다 큰 것에 바친 사람”, 일반인의 성취와 경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룩한 이들을 영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영웅은 육체적으로는 타인을 구하는 데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정신적으로는 영적인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희한한 체험을 한 후 우리 삶에 유용한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로<sup>11)</sup>, 이러한 ‘영웅의 여정’을 이행하는 모든 이는 영웅이 될 수 있다. 슈퍼히어로의 ‘영웅의 여정’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세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한다. 그 과정에서 슈퍼히어로의 모험은 현실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슈퍼히어로물 이전과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슈퍼히어로는 인간의 욕망과 결핍을 투영하고 있는 상징적 존재, 인간

7) 김창현, 「한국 여성 영웅 서사의 미학적 특징에 대한 일고찰」, 『인문과학』88, 2023, 40면.

8) ‘슈퍼히어로’ 하면 떠오르는 존재는 마블이나 DC코믹스에서 보게 되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위도우, 슈퍼맨, 배트맨 등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혹은 지구 밖에서부터 기인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지구인들을 위해 사용한다.

9) 위의 책, 31면.

10)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앞의 책, 229면.

11) 위의 책, 229면.

사회의 시스템의 여러 층위를 드러내는 존재여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규정된다.<sup>12)</sup> 바로 이 점이 ‘영웅’과 ‘영웅 서사’의 핵심이다.

영웅 서사는 이렇게 공공선을 향해 가는 개인의 노력과 모험을 보여주는 서사이다. 헤라클레스의 열두 과업의 대부분이 당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없애는 일이었고, 바리데기의 일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끄는 것이었던 것처럼, 영웅의 과업과 그에 따른 모험은 영웅이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점과 그것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통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즉 영웅 서사는 영웅 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과정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집단의 헤게모니나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을 반영하는 등, 공동체의 현실을 지각하게 만들고 변혁의 열망을 보여주는 사회문화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sup>13)</sup> 중요한 것은 영웅 서사의 스토리텔링이 각 시대의 가치관이나 시대정신,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sup>14)</sup>

본고는 정세라의 『보건교사 안은영』(2015)이 현대판 영웅 서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 영웅 서사로 이 소설을 읽어보려 한다. ‘판타지 명랑 학원물’이라고 소개된 『보건교사 안은영』은 블로그에 연재되던 단편들을 묶은 일종의 연작소설이다.<sup>15)</sup> 「사랑해 켈리피시」, 「토요일의 데이트메이

12) 서수정, 「현대 슈퍼히어로 지형도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71, 2023, 336~338면.

13) 박형준, 「영웅서사의 해체와 사건의 존재론」, 『오늘의 문예비평』107, 2017.겨울, 54면.

14) 전영돈, 「시대별 영웅서사의 스토리텔링 변화 연구」, 『디지털영상학술지』18(1), 2021, 89면.  
전영돈은 슈퍼히어로라는 신화 속 영웅들을 모티프로 만들어졌으나,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슈퍼히어로물을 만들면서 슈퍼히어로를 구원자로 묘사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소외된 약자들이 더 내몰리면서 슈퍼히어로물의 주인공이 소외된 자, 비주류, 결핍이 있는 자가 되어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2010년대에는 PC주의가 더해졌다고 했다. 주인공이 이렇게 입체적 복합적 인물로 설정되자 빌런도 발전해서 빌런 역시 소외계층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같은 글, 94~107면 참조.)

15) 『보건교사 안은영』은 드라마(6부작)로 제작되어 2020년 9월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은 연출자인 이경미 감독과 원작자인 정세라 작가가 함께 각색했다. 소설과 시리즈에는 등장하는 인물과 에피소드가 많이 겹치는데, 책에만 있는 에피소드가 몇 편 있다. 본고에서는 단행본으로 발간된 『보건교사 안은영』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을

트, 「럭키, 혼란, 「원어민 교사 메켄지, 「오리 선생 한아름, 「레이디버그 레이디, 「가로등 아래 김강선, 「전학생 움, 「온건 교사 박대홍, 「돌풍 속에 우리 둘이 안고 있었지」의 열 편은 주인공인 보건교사 안은영과 그의 조력자인 한문교사 홍인표가 M고에서 ‘젤리’를 퇴치한다는 중심 서사를 공유한다. 주인공인 안은영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종의 엑토플라즘, 죽고 산 것들이 뿔어내는 미세하고 아직 입증되지 않은 입자들의 응집체”<sup>16)</sup>인 ‘젤리’를 보고, 그것과 싸워 퇴치할 수 있다. 남들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학교’에서 여러 사건과 젤리와 맞서 싸우고 학생들과 학교의 안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안은영은 앞서 설명한 영웅과 부합한다. 젤리를 퇴치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부터 학교를 지키는 은영의 과업이 이루어지는 모험의 세계가 ‘학교’이고 학교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교사 안은영』은 판타지가 가미된 영웅 서사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소설이 “애니메이션과 게임같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깊은 영향 아래 구성되고 쓰”여서, 각 장의 사건들이 “어드벤처 게임이나 롤플레이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수행해야 할 하나의 퀘스트나 미션처럼 느껴”진다는 점<sup>17)</sup>, 보건교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점, 보건교사의 흰 가운이 슈퍼히어로의 강화복처럼 기능한다는 점, 대중서사에서 익히 볼 수 있는 슈퍼히어로와 짝패의 호흡을 안은영과 홍인표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보건교사 안은영』은 여느 현대의 슈퍼히어로물처럼 매우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슈퍼히어로물의 주인공은 현실이 고달픈 소외계층·경제적 약자, 비주류, 여성, 인종 등·인 경우가 많은데, ‘보건교사’인 ‘여성’ 영웅 ‘안은영’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에 대한 논의는 이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연구」(『어문연구』108, 2021.) ; 한정훈, 「OTT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에서 구현된 인간의 욕망 문제와 해법의 윤리」(『문화와 융합』43(12), 2021.) 등 참조.

16)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2판), 민음사, 2020, 20면.

앞으로 『보건교사 안은영』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17) 노대원, 「소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음과모음』31, 2016, 388면.

은 소수자인데다가 그와 연대하는 조력자인 한문교사 홍인표 역시 장애인이라는 비주류라는 점에서도 21세기의 대중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성은 현대판 영웅 서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에피소드 식 구성, 모험의 세계가 일상의 세계와 동일하다는 점, 과업 중심으로 영웅의 모험이 전개된다는 점 역시 전통적 영웅 서사와 다른 점이 지만,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슈퍼히어로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서사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보건교사 안은영』은 현대적 영웅 서사인 동시에 현대의 대중 서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대중성이라는 형식 안에 놓인 영웅 서사의 핵심이다. 전술했듯이 영웅 서사는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 보인다. 안은영과 홍인표가 마주하는 학교의 현실은 실상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맞닥뜨려야 했고 맞닥뜨렸던 비판적 현실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젊은이들의 감각에 호소하는 유희적이고 대중적인 서사이지만 진지한 작가 의식의 발로”<sup>18)</sup>로 볼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안은영’이 있다. 영웅에게 공공선을 추구하려는 강인한 의지가 없다면 그는 영웅이 아니라 ‘빌런’이 될 수도 있다.<sup>19)</sup> 영웅인 주인공의 임무는 그가 영웅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충효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 관변(官邊) 담론이 중요했던 시대의 영웅은 국가나 세계를 위해 싸우는 존재였지만, 21세기의 영웅은 그러한 거대담론이 아닌 미시담론을 위해서도 싸우는 존재이다. ‘공공선’은 국가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직장, 동네라는 작은 세계에 오히려 더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스나 바리테기의 임무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게다가 여성 영웅은 남성 영웅 못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거나 먼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의 운명과 어떤 방식으로든 맞서 싸워 온 인물들이다.<sup>20)</sup> 여성들이 주어진 운명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운명의 주체가 되는

18) 위의 글, 390면.

19) 4장에서 서술하겠지만, 원어민 교사 매켄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용기를 보이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거나 세상의 끝으로 모험을 떠나지 않더라도, 차별과 소외에 맞서려 했던 영웅적 여정은 여성 영웅 서사의 핵심이다.<sup>21)</sup> 현대의 여성 영웅인 ‘보건교사 안은영’의 젠리 퇴치라는 모험은, 현실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에서 작동되는 욕망과 그 속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된 인물들을 돌보는 영웅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 속에는 학교 중심으로 한 현실에 대한 정치적 (무)의식이 드러난다. 즉 안은영이라는 여성 영웅의 모험 서사는 공공선의 추구, 공동체와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는 장치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교’라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안은영의 모험을 영웅의 여정 속 모험 요소들을 따라가며 살펴보고, 이 모험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에 숨어 있는 현실의 정치적 무의식을 찾을 것이다. 신화나 영웅담은 본래 상징 체계로 작동되므로, 모험과 시련의 이면에 작동하는 상징과 현실인식을 파악해야 이 영웅 서사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교사 안은영』 속 여성 영웅의 과업을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모습이 안은영을 21세기식 여성 영웅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20) 전혜진, 『규방의 미친 여자들』, 한겨레출판, 2023, 17면.

21) 위의 책, 26면.

전혜진은 옛이야기 속 여성 주인공들은 신분제나 가부장제에 맞서기도 하면서, 남장을 하고 세상에 나아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자매애로 연대하며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기도 하는데, “자주적인 영웅의 모습과 모두의 존경을 받는 귀부인의 모습이라는 이중성”을 품으면서 자신들의 세계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적 영역 모두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옛이야기 속 여성 영웅 서사는 남성 중심의 영웅 서사의 아류가 아니라 “당대 여성들의 꿈을 형상화한 존재”가 “당대 여성들이 겪었던 현실과 여성의 소망을 담은 개념”이 된다고 보았다. (같은 책, 24~25면.)

## 2. 바리데기의 후예, 보건교사인 여성 영웅

‘안은영’은 영웅 서사의 일반적인 남성 영웅과 달리, 한 사립 고등학교의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전문직 여성이다. 그러나 안은영은 평범한 보건교사가 아니다. 그는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스스로 “사실은 멀쩡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이른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원래부터” 즉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비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19)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은영의 능력을 알려주는 이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쳐준 이도 없다. “영웅의 여정”(캠벨)에서 영웅이 소명을 받고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소명을 받아들이면서 영웅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은영에게는 소명이나 거부, 승인의 과정이 없었다. 은영은 자신의 세계가 다른 이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어린 시절부터 적의와 적의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감각이 발달했으며,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는 법까지 모두 ‘ 스스로’ 발전시켜 나갔다. 자신의 기운을 입힌 장난감 칼과 비비탄 총에 능력을 더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근대 의료를 익힌 간호사 출신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보건교사 안은영의 삶은 이토록 토대 미증적”(20)이다. 그래서인지 은영은 일종의 ‘기능적’ 인간에 가깝다. 그는 외모를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없으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은영에게 중요한 것은 기동성 있는 신발과, ‘보건교사’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무기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가운뿐이다. 은영은 ‘전사(戰士)’로서의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런 은영에게서 영웅의 비장미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영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욕을 하기도 하고, 장난감 칼과 비비탄 총을 쓰는, 명랑만화에 가까운 캐릭터를 갖고 있다. 이런 캐릭터는 중학교 동창 김강선이 만들어준 것이다.(「가로등 아래 김강선」) 서로의 남다름을 이해해주는 ‘친구’인 강선은 켈리와 싸우는 은영의 치열한 삶이 “칙칙한 호러물”이

아니라 “달리는 소년 만화” 장르가 되어야 한다며 영웅의 삶에 대한 은영의 관점을 바꿔준다.

“너는 말이야, 캐릭터 문제야.” / “뭐라고?”

“장르를 잘못 택했다 말야. **칙칙한 호러물이 아니라 마구 달리는 소년 만화여야 했다고. 그랬으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았을 거야. 그 꼴로 다치기도 않았을 거고.**” / “만화가 아니야.”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려 봤지.”

강선이 스케치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교복을 입은 은영이 5등신 정도 되는 비율로, 치마는 좀 짧아진 채 그려져 있었다. 5등신이 기분 나쁘지 멋대로 치마를 잘라 먹은 게 기분 나쁘지 얼떨떨했다. 그 그림 속 은영의 한 손에는 무지개 갈때기 칼이, 다른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은영이 뭐라 반응하기 전에 강선이 의자에 걸려 있던 커다란 가방에서 정말로 갈때기 칼과 비비탄 총을 꺼냈다. 낡고 흠집이 있는 게 분명 강선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물건인 것 같았다.

“도구를 쓰라고, 멍청아.” / “아.” / “**다치지 말고 경쾌하게 가란 말이야.**” / “하.”

“코믹 섹시 발랄? 아무래도 섹시는 무리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강선이 은영의 납작한 가슴(그리고 그 이후로 딱히 발육이 좋아지지 않았으므로 강선의 예언이 맞기도 했다.)을 뼈뚫하게 쳐다보았으므로 은영은 기운을 차리고 지우개를 던졌다.

캐릭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장르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우개가 명중하는 순간 은영은 예감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은영은 사실 강선의 설정인 셈이었다.(191~193면, 강조:인용자)

강선은 평생 가야 하는 모험의 여정에 임하는 은영의 태도와 관점을 바꿔주었다. 켈리 퇴치용 도구를 제안한 것도 강선이다. 강선의 제안으로

은영은 칙칙한 호러물의 주인공이나 비장한 히어로물의 주인공이 아니라, 경쾌한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 되어 매일의 모험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서사는 정체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강선은 퇴마라는 비장함에 치우쳐 은영이 자신을 잃는 것을 경계할 수 있게 도왔다. 그가 만들어준 은영의 캐릭터 덕분에 은영은 자신의 과업과 그에 따르는 모험이 그가 달성해야 하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생 계속될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현대의 영웅/슈퍼히어로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일상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직업’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간호사이자 퇴마사라는 은영의 업(業)은 은영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부터 부여된 것에 가깝다.

몇 년 전까지는 대학 병원에 있었다. 전문 퇴마사로 살지 않는 이상 돈을 벌어야 했고, 커트라인 밀이었는데도 간호대에 철썩 붙어서 주옥 병원에 있었다. 병원도 학교도 드글드글하기로는 매한가지였다. 왜 하필 간호사를 직업으로 골랐을까. 아니, 아니다. 해가 갈수록 더 느끼는 점이지만 **사람이 직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직업이 사람을 고르는 것 같다.** 사명 같은 단어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므로 수긍하고 받아들였다기보단 수월한 인생을 사는 걸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게 맞겠다. 병원에 있을 때는 힘든 파트만 다녀서 지금보다도 더 너털너털했다. 몇 년쯤 하고 나니 새벽의 병원 복도에서 기나긴 싸움을 하는 게 벅찼다. 그래서 대학 때 내놓은 보건교사 자격증을 활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20~21면, 강조:인용자)

퇴마사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도, 간호사가 된 것도, 보건교사가 된 것도 은영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전통 영웅 서사의 영웅이 하늘로부터 점지된 인물로 세상에 온 것처럼, 은영의 영웅으로서의 삶은 예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은영에게는 부여된 영웅으로서의 소명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다. 은영은 “직업이 사람을 고르는” 것이라 생각하

고, 자신의 능력이 이끄는 대로 옮겨가면서 주어진 과업을 계속해 나갈 뿐이다. 은영 스스로 “꼬인 팔자는 어디 가지 않는다”(21)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소명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없애는 은영이 왜 ‘영웅’일까? 학생들의 병을 고쳐주고(‘보건’교사) 학생들을 지도하는(‘보건’교사) 동시에 퇴마사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생활 전반의 안녕을 도모하는 안은영은 우리나라의 여성 영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바리데기’와 닮았다. 우리나라의 소설이나 옛날이야기, 무속의 여신들을 통해 여성 영웅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는데, 이 원형으로 무조신(巫祖神)인 ‘바리’에 주목할 수 있다.<sup>22)</sup> 공주로 태어났으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살리라는 소명을 받고 고난 끝에 약을 가져와 아버지를 살리고 신이 된 바리데기의 일생은 캠벨의 영웅의 여정에도 부합한다.<sup>23)</sup> 바리데기는 모험에 따른 보상으로 나라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가엾고 불쌍한 혼들과 지옥에 떨어진 이들을 인도하는 무조신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아버지를 살리고 약자들을 인도하는 무조신 바리데기의 역할은 보건교사인 안은영의 그것과 동일하다. 바리는 아버지를 살릴 약을 얻기 위해 저승에 가서 노인의 발을 대신 갈아주고 빨래를 대신 해 주고 이도 잡아주고, 무장승의 집에서 나무하기, 불 때기, 물 길기, 혼인하여 일곱 아들을 낳는다. 그 후에 자신이 길었던 물이 약수이고 베었던 풀이 약초임

22) 전혜진, 앞의 책, 32-33면.

23) 위의 책, 45면.

“바리데기의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한 조지프 캠벨의 영웅의 여정에 잘 들어맞는다. 특히 〈바리데기〉나 〈당금애기설화〉 등에서 여성이 신이 되기 위한 여정은 현실의 여성이 겪는 고난을 반영하며, 보편적인 여성의 고난과 통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옛이야기 속 여성 주인공들은 어떨까? 이들은 많은 경우 바리와 같이 소외된 존재다. (...) 이 소외된 주인공들이 부모를 구하기 위해, 부모와 재회하기 위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혹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것이 여성 영웅 이야기의 뼈대다. 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기에, 소명의 거부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같은 책, 같은 면.)

을 알게 된다. 영약을 구하기 위한 바리의 모험은 여성의 일상적 삶 안에 있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은영의 모험 역시 그의 일상의 공간, 일터인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은영의 업과 모험의 공간 모두 바리데기의 그것처럼 일상에서 다른 사람, 특히 약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은영을 바리데기로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여성 영웅의 계보에 넣을 수 있다. 또한, 과업 중심인 은영의 영웅으로서의 모험은 헤라클레스의 열두 과업을 떠오르게 한다. 그리스·로마 신화 최고 영웅인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굴욕적일지언정 과업을 수행했다. 과오를 씻기 위한 정화의 노력은 그를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었고 ‘알케이데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갖게 했다. 헤라클레스의 열두 과업<sup>24)</sup> 중 아홉개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괴물을 처치하는 것이고 하나는 환경오염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의 과업이 지향하는 바가 일반인들 특히 약자를 돕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의 직업도, 초현실적인 능력을 사용한 일도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건교사 안은영은 영웅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외로이 장난감 칼과 비비탄총으로 수많은 젤리를 무찌르는 ‘히어로’”, “사뭇 심드렁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은영”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사람,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만 받아도 계속해나가는 사람, 보편적인 것과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세계에 친절한 사람”이라는 ‘히어로’<sup>25)</sup>다. 은영은 젤리를 보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젤리를 적대적

24) 열두 과업은 식인 사자 죽이기, 히드라 처치, 농작물을 망치는 황금뿔 암사슴과 멧돼지 처치,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 청소, 과일을 먹는 괴물 새 떼 처치, 날뛰는 황소 포획, 식인 말 가져오기, 아마조네스 여왕의 허리띠 가져오기, 소 떼 몰고 오기, 황금사과 가져오기, 케르베로스 데려오기이다. 헤라클레스의 열두 과업에 대해서는 김현, 『김현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을유문화사, 2022, 421~430면 참조.

25) 「정세랑 작가 “보건교사 안은영”은 나의 장난감 칼과 비비탄총」, 『연합뉴스』, 2020.10.9.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9055300005?input=1195m> (2023-07-27)

으로 대하지 않으며, 무해한 것과 해가 되는 것을 구별해 대한다.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존재를 그대로 이해하려 한다. 자신의 ‘첫 친구’로 여전히 놀이터에 있는 너무도 무해한 존재인 정현을 찾아가 그가 좋아하는 과자를 주는 것은 사라지지 못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죽은 어린 영혼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은영은 소외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선함은 켈리를 보고 퇴치하는 능력에 동기를 부여하고(해로운 켈리는 없앤다),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저승으로 인도한다. 무해한 영혼에 대한 은영의 공감은 은영이 살아온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에서 기인한다. 은영이 마주하는 사건사고<sup>26)</sup>는 은폐되거나 잊힌 사회적 문제들의 잔여물, 흔적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와 공감은 은영의 동력이 된다. 공공선을 향한 노력은 은영을 바리데기와 같은 무조신과 같은 영웅으로 만든다. 이런 점에서 보건교사 안은영은 “고전적인 미덕을 근간으로 하며 영웅으로서의 고뇌와 빌런과의 대립 등 히어로물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보편성을 답습”하는 한편, “‘여성’이면서도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부여”받은 슈퍼히어로이다.<sup>27)</sup> 안은영이라는 여성 영웅의 또 다른 특징은, 바리데기로부터 받은 여성 영웅의 특성에 슈퍼히어로들이 갖는 남성 영웅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바리데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때 대상과 공감하고, 타인을 끌어안는 포용력을 발휘하고, 인내하고 희생했는데<sup>28)</sup> 이러한 점이 바리데기

26) 청소년의 자살, 강선의 크레인 사고,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 혈연적 가족 구성을 넘어선 ‘가족’의 문제, 움잡이의 일생을 통해 드러나는 전쟁들, 절도, 학교에 악한 것이 들어온 이후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 배제의 말과 행동들 등의 문제가 소설에 등장한다. 이러한 문제는 드라마에서는 더욱 잘 드러나는데, 강선의 에피소드에 방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투입되고, ‘안전한 행복’과 ‘일광소독’과 관련된 독점욕이 서사의 한 축을 형성하는 등, 이 이야기는 현실의 문제들을 전경에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이다운, 앞의 글, 184면.

28) 강혜선, 「서사무가(敘事巫歌) 〈바리공주〉의 여성적 리더십 연구」, 『돈암어문학』 25, 2012, 111면.

강혜선은 “바리공주의 여성적 영웅성은 한국의 많은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여성(여신)들과

로부터 내려온 여성 영웅의 뚜렷한 특성이라면, 은영은 여기에 더해 켈리를 퇴치하는 전투력이라는 남성 영웅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난감에 능력을 더한) 칼과 총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싸우는 은영은 ‘전사이기도 하다. 이 점이 은영을 ‘21세기식 여성 영웅’으로 만든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소설의 영웅과 조력자가 ‘소수자’라는 점이다. 여성이자 학교에서도 비교과인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안은영은 소수자인 영웅이고, 영웅의 조력자인 한문교사 홍인표는 학교 설립자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데다가 핵심 과목이 아닌 ‘한문’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소수자이다.<sup>29)</sup> 그런데 인표의 약점은 오히려 인표의 최대 강점이다. 인표에게는 그를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 남긴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그를 보호하는 거대한 에너지 장막이 둘러 있기 때문이다. 인표의 보호막은 인표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지키는 인표를 돕는 힘이며, 켈리와 싸우면서 학교와 학생을 보호하려는 “은영의 보조 배터리”(71)이기도 하다. 또 인표의 지식은 은영의 모험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인표는 ‘학교’라는 모험의 세계를 지키고 있는 관문의 수호자 같은 존재이며, 이 모험의 세계로 들어온 은영을 도와 학교를 지키는 사명을 받은 존재이다. 영웅과 조력자 모두 소수자인 이 독특한 영웅

---

공통된 것으로, 남성 위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의 품 안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성의 포용력으로 세계를 인식하려는 무속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글, 같은 면.)

- 29) 학교의 위기를 타개하는 영웅이 남성이자 설립자의 손자인 홍인표가 아니라 여성인 보건교사 안은영인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게다가 은영은 별명이 ‘아는 형’일 정도로 소탈한데다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지도 않고, 여느 여자 선생님들과도 다르다. 이다운은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이 “안은영과 홍인표, 허완수와 강민우의 관계성을 전복적으로 재현하고 안은영에게 히어로의 책무를 깨닫게 하는 또 다른 히어로(움잡이)를 중성적인 여성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착화된 젠더 정체성에 지속적으로 균열을 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다운, 앞의 글, 186면.) 이 여성 영웅 서사는 여성 영웅이 던져진 모험의 세계 자체가 그가 투쟁해야 하는 세계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조력자로 공동체로 만나 연대하는 인물들 역시 소외된 존재, 주변화된 존재임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책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사는 학교 내에서 맺는 약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과업을 해결해 나간다. ‘보건’ ‘교사’인 영웅 안은영이 마주하는 학교리는 모험의 공간에서 영웅의 과업은 어떤 정치적 (무)의식을 내포하고 있을지 살펴보자.

### 3. 여성 영웅의 과업 - 치유와 돌봄, 공감과 연대

보건교사 안은영의 모험의 공간은 ‘M고교’이다.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학생들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 애정에 대한 욕망 등 개인적인 욕망뿐 아니라, 학교의 운영이나 교과서 채택 문제, 사회적 약자인 학생을 둘러싼 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혼재된 공간이다.<sup>30)</sup> 그런데 은영은 출근 첫날부터 학교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18)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학교 건물 자체다. 인표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낡은 도면을 펼쳐 놓고 들여다보곤 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늘 공간이 부족했다. 증축을 한 것도 아니고 처음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모양인 걸까. 해방 직후에 지어졌는데 어째서 지하 3층까지나 있지? 계다가 쓰고 있는 건 지하 1층까지다. 창고 용도로 아주 일부만 쓰고 있다. 학생회에서 자꾸 지하층을 동아리 공간으로 내달라고 조르는데, 인표는 웬지 내키지가 않았다. 합당한 요구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지하층 입구를 동여매고 있는 저 쇠사슬들을 쉽사리 풀고 싶지가 않았다. 인표의 팔뚝만큼 굵은 쇠사슬들이었다. (...)

그 유지를 받들어 교직을 택했지만, 잘하고 있는지는 확신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신경을 써 지은 이 학교에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아이

---

30)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에서는 학교를 놓고 벌어지는 집단의 알력 다툼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적대적인 축으로 설정되어있으나, 소설의 경우는 전체 서사를 관통하는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다양한 욕망이 길항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와 이를 통한 정치적 무의식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들이 우박처럼 떨어졌다. 10대 자살률이 워낙 높은 나라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였다. 각종 사고와 비행의 빈도 역시 상당히 심각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다.(24~25면)

학교는 대한민국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10대의 자살 문제를 비롯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이 비단 M고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소독업체를 바꾼 이후부터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생겼다는 점은 문제다. 이런 점에서 영웅 은영이 이 학교로 오게 된 것은 그의 의지라기보다는 영웅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름을 받은, 영웅의 운명에 따른 것이다. 은영은 학교 지하실에 압지석(壓池石)에 금줄로 해 두었던 봉인이 깨지면서 학교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된 것을 눈치챈다. 그리고 인표의 도움으로 학교가 자살자들의 뚫(洩)을 메운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곳에서 나온 “물고기인 것도 같고 개구리인 것도 같고 뱀인 것 같기도 한” 흉측한 생물(40)은 사랑을 이루지 못해 죽은 아들, 정사(情死)를 가장해 타살당하고 버려진 이들의 원한이 오래 묵으며 변한 원한이었다. 그것이 학생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을 공격하는 흉측한 생물은 비단 오래 묵은 원한 때문이 아니다. 죽은 이들을 위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 버린 관(官)의 태도가 원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못 속의 괴물은 청소년과 학교의 문제들을 그 근본부터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덮어두고는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방치해 오던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모순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억압만 했던 학교 현장에서의 수많은 사고들은 결국 터져나오게 된다. 이 괴물이 『보건교사 안은영』의 첫 단편인 「사랑해 켈리피시」에 등장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후의 단편에서 과도한 경쟁, 청소년기의 문제, 학교와 학생을 둘러싼 이념의 문제, 배제와 차별의 문제 등이 은영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괴물과 싸우는 은영이다. 은영의 싸움은 괴물을 ‘처단’하는 것에 있지 않다. 켈리는 무언가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은영이 없애는 것은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욕망의 잔여물이고,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악연을 끊는 것이 은영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괴물을 처치하는 것은 영웅인 은영의 과업이지만, 은영이 괴물에 맞서는 것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압지석이 들리고 무언가 아이들을 공격해 아이들이 옥상 철망을 기어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은영은 “스타킹 발로 복도를 달려”(37) 철망에 기어오르는 아이들을 후려쳐 기절시키고, 공격받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기어오르려는 아이들을 붙잡으라고 이르면서 “옥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받아먹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머리를 공격했다. 은영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데도 원한에 끌려들어가는 학생들이었다. 인포의 보호막으로 총알을 장전하고 거대한 머리를 향해 총을 발사하는 여전사 같은 은영을 싸우게 하는 힘은 학생들을 구하고 싶다는 보건교사로서의 염원이다. 은영이 아무리 청소년들에게서 나오는 ‘에로에로 에너지’가 만들어낸 켈리가 싫다고 해도, 에로에로 에너지가 가득한 학교는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표출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보건교사 안은영은 그들의 욕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니 은영은 켈리의 공격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공격받은 학생들을 말리려 하는 간절함, 그들의 건강성, 명랑성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도 더욱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다. 전사인 영웅 안은영의 목적은 바로 학교의 건강성을 지키는 것이다.

은영의 켈리 퇴치는 사라져야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을 잘 인도해 보내주는 역할도 한다. 이는 무조신이 된 바리데기가 해 왔던 여성 영웅의 일이다. 노대원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도 하찮아 보이는 이중으로 소외된

타자에 가까운 존재들을 ‘뵈’으로 그들을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은영의 역할이 퇴마사인 동시에 치유자인 전통적인 무녀(巫女)의 그것에 가깝다고 하면서, 악귀를 퇴치하고 혼령을 애도하고 위무하는 은영이 보건교사인 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sup>31)</sup> 경쟁 사회에 희생당하는 학생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위로자로서의 영웅 은영을 「럭키, 혼란」에서 볼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인 지형과 민우(럭키와 혼란)는 L여고에서 방석을 훔쳐 오는데, 야자를 하려고 반에 남았던 아이들은 통곡을 한다. 방석에는 사고로 죽은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곳으로 끌려 온 방석 주인의 두려움과 반 아이들이 ‘동기화’된 것이다. 서술자는 방석 위의 그 존재를 켈리 혹은 귀신이라 칭하지 않고 ‘여자아이’라고 한다. 은영 역시 그 아이를 연못 괴물을 퇴치하듯 없애지 않는다. 은영은 이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하면서 아이를 가야 할 곳으로 보내준다.

사는 것도 혼란스러운 나이에 죽어서, 미처 그 죽음의 상태에도 익숙해지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뜯겨 온 아이였다. 눈앞에서 아이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고 여기저기 멍이 나타나기도 했고 피를 뺏거나 얼굴에 반점이 생기기도 했다.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 변화들만으로는 왜 죽었는지를 짐작할 수도 없었다. 은영은 그런 죽음을 싫어했다. 때 이르고 폭력적인 죽음 말이다. 그런 죽음을 그만 보려고 직장을 옮긴 것인데 결국 또 보고 말았다. 울음의 동심원 안에 앉아 혼란스러워하는 여자 아이에게 말을 걸어 보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번엔 너희가 정말 잘못된 거야. 모르고 한 거였다 해도. 이 아이를 데려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 애초에 방석 훔치기 자체가 꺼림칙하고 시대착오적이기 짝이 없는데 어째서……. 은영은 속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접은 상태로는 아이스크림콘만 한 은영의 플라스틱 칼이, 살짝 여자애를 그었다.

31) 노대원, 앞의 글, 389면.

울던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 은영이 지형의 의자에서 거칠게 방석을 잡아 뺐다. 방석을 태우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87~88면)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죽음의 이유를 짐작할 수도 없는 폭력적인 죽음을 겪은 아이가 자신이 속해 있던 교실에, 자신의 자리의 방석에 매여 있다는 점이다. 아이의 폭력적인 죽음도 문제이지만 그 아이는 죽어서도 교실의 방석에 묶여 있다. 대입이라는 목표에 매인 생의 방식은 죽어서도 교실의 방석에 아이의 영혼과 욕망을 묶어둔 것이다. 둘째, 방석에 남은 아이는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교실의 방석에 묶여 있는 영혼이다. 그 아이를 익숙한 공간에서 갑자기 떼어내 온 것인데, 다른 이의 방석을 훔치면 행운이 따른다는, 절도를 합리화하고 미신에 매몰된 럭키와 혼란의 행동이 청소년들의 ‘장난’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입시에서의 행운을 정당화하는 절도는 경쟁사회의 부산물이다. 폭력적인 죽음 후에도 매여 있던 곳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의 영혼과 방석 절도 사건은 그러므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 신화에 휩쓸린 아이들의 욕망과 그 잔여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은영은 불가항력적 폭력에 희생된 자들의 마지막을 또 다른 폭력으로 맺지 않고, 그의 ‘공감’과 ‘친절함’이라는 무기로 매조짓는다.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은영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애도이며 자신들이 한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교사로서의 마음이 한데 합쳐져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안은영이라는 여성 영웅은 그 세계(학생들)를 위해 치유(‘보건’)와 돌봄(‘교사’)을 행한다.

그 자신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안은영의 특별함은 동일성을 추구하는 청소년 또래집단에서 차이와 균열을 보이는 존재들을 예민하게 포착해 낸다. 『보건교사 안은영』에는 은영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다른 이가 등장한다. 원어민 교사 매켄지와 전학생 ‘움잡이 백혜민’이 그들이다. 은영이 소명대로 사는 영웅의 길을 택했다면, 매켄지는 자

신의 능력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은영과 매켄지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존재·영웅과 빌런이라면, 움잡이는 삶에 주체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이다.

움은 “단순한 본성만 있는 놈들이니 사악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움이 물리면 나쁜 일이 일어날 전조로 볼 수 있다.(205) 젤리를 보는 은영의 눈에도 움은 잘 안보이기 때문에 움잡이가 필요하다. 은영과 헤민은 이 학교를 지킨다는 면에서 같은 부류·영웅·라고 할 수 있다. 움잡이 백헤민은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구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은영과 움잡이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움잡이는 삶에 대한 어떠한 선택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난 데가 없”고 “부모가 없”고 “그냥 어느 날 눈뜨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근처 “23.8제곱킬로미터 안에서” 태어나고 죽는 움잡이는 마흔 번 이상의 생을 반복하며 움을 잡아왔다. 움이 번질 때 맞추어 태어나 스무 해를 살고 나면 사라지는 움잡이는 성별도 수명도 일을 할지 말지도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움을 잡고 살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 게임의 NPC 같은 존재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헤민에게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헤민은 처음 태어났을 때와 달리 삶의 질이 향상된 현재에도 스무 해로 정해진 수명이 안타깝고, 처음 여자로 태어난 삶과, 처음 느끼는 평화로운 삶에 대한 욕망도 숨겨야만 한다. 그러나 예민한 은영은 “스무 살을 넘기고도 살아 보고 싶”다는 헤민의 마음을 알아챘다. 헤민은 움잡이와 퇴마사는 “그냥 시스템의 일부”, 버그가 나오면 생기는 패치처럼 움을 잡고 악기(惡氣)를 잡으면서 “에러를 수정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사실 은영은 내심 “열심히 사람들을 지키고 돕다 보면 흰 수염을 기르거나 옥비녀를 꽂은 누군가가 어느 날 찾아와 ‘고생했어, 이제 여생을 좀 즐기며 살아.’ 하고 칭찬하며 해방시켜 주길 바라 왔”(210)다. 모험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은영이 바라는 영웅의 고단한 여정에 대한 보상이었다. 은영은 헤민과 다르게 이 삶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해방을 꿈꿔왔던 은영은 변하

지 않은 시스템 하에 존재하는 신세대 움잡이 헤민에게도 해방의 욕구가 있음을 알아채고 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은영도 헤민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원대로 영위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더 살고 싶다’, ‘더 나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소명대로 살고 있다 해도 영웅 역시 욕망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며 소명과 상관 없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보통 사람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헤민의 해방은, 영웅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21세기식 영웅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은영은 헤민을 스무 살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속적인 매켄지를 만나 정보를 얻어내고 병원에 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의사를 통해 헤민의 위를 떼어내고 그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자신을 희생해 가며 마흔 몇 번의 움잡이의 삶을 살았던 그의 희생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보상받았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헤민에게 은영이 건넨, “설사 움이 창궐한다 해도 네 책임이 아니야.”(222)라는 말은 헤민에게 전하는 감사와 보상의 표현인 동시에, 은영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은영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쁜 것이 학교를 어지럽힌다고 해도, 그것은 은영의 영웅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은영이 태만한 영웅이어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돌풍 속에서 우리 둘이 안고 있었지」에서 거대한 용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인표는 은영에게 “어차피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어요. 친절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이겨요.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것까지 친절함에 포함되어 있으니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그게 이번이라고 괜찮아요. 도망칩시다.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칩시다. 나중에 다시 어떻게든 하면 될 거예요.”(271)라고 말한다. 영웅이라고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 친절함이라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해도 질 수 있고, 이기지 못하는 것도 친절함의 일부라는 인표의 말은 이 영웅 서사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현대의 영웅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며, 영웅의 모험이 언제나 승리만을 가져오

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도전하는 영웅의 여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승리만이 영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공공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한다면 질 수도 있다는 것,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다’는 인표의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쁜 것들에 맞서는 은영에게 위로인 동시에,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세계를 지키는 ‘친절함’이 영웅이 갖는 최대 무기이다. 이 친절함은 연대를 만들고, 연대는 확대된다. ‘옴잡이 박혜민-보건교사 안은영-수호자이자 조력자인 한문교사 홍인표’라는 연대는 그런 점에서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규정하거나 얽매지 않는 ‘자유주의자 아이러니스트’<sup>32)</sup>들이고, 이들의 연대가 결국 M고교를 지탱하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초자연적인 힘은 은영에게 있으나 은영은 인표나 보건실에서 만나 유대를 쌓은 학생들과의 연대가 없이는 학교에서의 모험을 완수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 영웅 서사의 특징이 드러난다. 공동체와 연대가 전체주의적이고 획일화된 것으로 환원되는 세상에서, 여성 영웅 은영이 만드는 연대는 어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고통에 대한 감수성, 굴욕에 대한 감수성이 연대를 만든다.<sup>33)</sup> 사회가 학교에 강요해 온 것들 때문에 고통에 놓인 많은 존재들이 만들어낸 켈리를 보고, 그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이들이 만든 연대가 바로 이 영웅의 모험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32) 자유주의자 아이러니스트는 그들의 도덕적 숙고의 언어, 양심의 언어와 공동체의 언어가 우연하다는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헌신과 그 헌신이 갖는 우연성의 감각을 결합시키는 사람들이다. (리처드 로티, 김동식·이유선 역,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 사월의책, 2020, 143면.)

33) 위의 책, 199면.

#### 4. 자본주의적 욕망 대 공공선의 추구

현대의 영웅과 맞서는 가장 큰 적은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욕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욕망은 공공선을 해하고, 물신화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며, 거대담론과 제도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소외된 자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은영이 모험의 세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적 역시 자본주의적 욕망이다. 특히 ‘원어민 교사 매켄지’는 은영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영웅이 아닌 ‘돈’을 좇는 삶을 택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원어민 교사 매켄지」) 교포 출신 미남 영어 선생인 매켄지는 자원해서 원예부를 맡아 화단을 갈아엎고 못 보던 품종의 꽃을 심는 등, 일반적인 계약직 교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매켄지는 은영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젤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잡아 모아 블랙마켓에 판매하여 돈을 버는 속물적 인간이다. 그가 원예반을 맡은 것도 “바깥은 죽어 있고 안은 살아 있는” 씨앗을 활용해 젤리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같은 능력을 가진 매켄지는 고독하고 고된 영웅의 삶과 일반인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 영웅들의 고민을 형상화한 존재와도 같다. 그렇지만 남들과는 다른 능력 때문에 겪었던 고통을 돈으로 보상받는 삶-그 능력을 활용하여 치부하면서 선택함으로써 매켄지는 은영의 대척점에 선다.

“나? 너보다 훨씬 고급 능력자. 그렇게 침병침병 다 잡아 없애고 돌아다니면 뭐 해요? 돈 되는 일을 해야지.”

문득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마음의 한 부분이 잠시 경련을 일으키듯 움직였다. 은영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위험하고 고된데 금전적 보상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은영의 능력에 보상을 해 줄 만한 사람들은 대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좋지 않은 일에만 은영을 쓰려고 했다. 아주 나쁜 종류의 청부업

자가, 도무지 되고 싶지 않았다. 은영은 다른 종류의 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가, 어느새부터인가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버렸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친절함을 버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은영의 일은 은영이 세상에게 보이는 친절에 가까웠다. 친절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덕목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은영과 인표는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

만약 능력을 가진 사람이 친절해지기를 거부한다면, 그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가치관의 차이니까.(123면)

은영은 영웅으로서의 자신의 일은 “세상에게 보이는 친절”이라 생각한다.<sup>34)</sup> 그것이 영웅의 모험의 핵심이라는 점은 세상에 친절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은영은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다. 매켄지와 은영은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가치관의 차이”라고 인정하는 은영과 달리, 매켄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는 자신과 은영을 비교하면서 은영의 영웅적 행동을 “소셜 서비스”라고 폄하하며, 판매 상품인 젤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젤리를 담아 둔 씨앗에 악한 기운을 묻혀 둔다. 그 때문에 매켄지를 좋아하는 사춘기 소녀 황유정은 진물이 나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매켄지의 욕망은 은영이 지켜주려 하는 청소년들의 건강성마저 배척한다. 매켄지에게 젤리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무엇이며, 은영과 반대로 젤리를 수입하고 그것에 관심을 보이는 자들을 해하면서까지 지켜내야 하는 욕망의 대상이다. 매켄지가 학교를 선택한 것도 넘치는 에너지로 에너지를 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젤리 사냥꾼 매켄지는 큰돈이 될 수 있는 연못 피물을 노리고 M고에 왔겠지만, 은영과

34) 이것은 무조신으로서의 바리데기의 일과도 상통한다. 가없고 불쌍하고 오갈 데 없는 영혼들, 지옥으로 떨어진 이들을 인도하는 마음 역시 친절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바리데기의 계보를 잇는 여성 영웅으로서의 은영의 특징을 보여준다.

인표가 그것을 없애 학교에는 ‘조무래기’ 젤리들만 남아 있었고, 또 친절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젤리들로부터 학교를 지키는 은영과 인표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데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빌린인 매켄지의 욕망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그는 학교 안의 젤리뿐 아니라 인표의 보호막 에너지를 탐낸다.

은영은 급하게 멈춰 서서 제대로 조준도 하지 못하고 매켄지를 췌다. 사람을 췌 본 적은 없었다. 산 사람을 췌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다. 딱밤과는 위력이 다를 건 분명했지만 말이다. 그래도 인표의 보호막을 떼어 가도록 가만둘 수는 없었다. 순순히 떠나는 척했을 때 믿어서는 안 됐는데 말이다. 어쩐지 한 번 더 내다보고 싶더라니……. **아마도 인표의 할아버지로부터 기인했을 강력한 사랑과 보호의 기운은 독특하고 귀한 것이었다. 그것은 은영이 빌려 쓰는 것이었고 사실은 인표도 빌려 쓰는 것이었고 근본적으로는 이 학교의 것이었다.**(128면, 강조:인용자)

인표의 보호막을 대하는 은영과 매켄지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매켄지는 이 보호막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집착적으로 인표의 단전을 노렸다. 그렇지만 은영이 말하듯, 이 보호막은 학교를 위한 것, 학교를 지켜야 하는 영웅과 조력자 역시 빌려 쓰는 것, 그래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강력한 사랑과 보호의 기운”은 누구 한 사람만의 소유가 아니라 이 세계-학교-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것을 알고 지키는 은영과 인표는 그러므로 이 세계의 영웅이다. 같은 젤리도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욕심이 친절함을 파괴하고 화를 초래하는 것을 마지막 단편인 「돌풍 속에 우리 둘이 안고 있었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켄지가 학교 내 젤리를 독식하기 위해 식물을 길렀던 것처럼, 학교를 파괴하고 싶은 세력

은 오랫동안 준비해 영웅-조력자(학교의 수호자)의 견고한 관계를 끊고 학교에 악한 것을 심어 두었다. 청결했던 학교에 이질이 돌아 휴교하였고, 인표의 장애를 악의를 가지고 흉내 내며 놀리는 아이들 생겼고, 서로 사귀던 여학생 커플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등 갑작스러운 증오가 시작되었으며, 교사의 성추행에, 학생들의 어이없는 절도까지, 학교에 연이어 문제가 터졌다. 악의(惡意), 증오, 혐오는 학교에 일어날 문제의 시작점이며 사회 전반의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친절과 정반대 자리에 있는 배제와 차별은 물리적인 폭력을 낳는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선(善)이라는 선(線)이 무너지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잔인성이 만들어내는 폭력이 학교를 휩쓸게 된다. 이것은 학교를 지키는 영웅이 대결해야만 하는,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서히 학교를 잠식하던 악한 것은 학교를 지키는 영웅의 눈도 가릴 정도로 준비가 철저했다. 인표가 선으로 만났던 지영은 이 일에 동원된 사람이었다. 지영은 인표와 만나면서 주술에 쓰일 “귀에 딱 달라붙는 진주 귀고리 한 쌍과 아마도 물려받은 듯 보이는 오래된 금반지”를 인표와 은영의 눈을 피해 학교로 운반했다. 지영이 옮긴 샷된 것이 토굴에 심기면서 학교에 악한 기운을 퍼뜨렸다. 토굴 속에서 실체를 갖추나가는 동안 이 악한 기운은 학교라는 공동체의 연대를 파괴해 나갔다. 학교를 지키는 영웅과 수호자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가장 신뢰해야 할 관계인 학생과 선생의 관계도 틀어졌고, 서로에게 공감할 수 없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형태의 폭력이 나타났던 것이다.

토굴 아래에 있던 존재, 검은 용은 매우 강해서 은영은 그것을 한번에 처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깨우고 말았다. 이 용은 은영의 눈에만 보였던 연못 속 괴물과는 달리, 모두의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용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누구의 원한 혹은 염원이 담긴 것일까. 강한 염원이 형상화된 존재인 “수목화로 그린 것 같은” 용은 검게 너울거리며 흐르고 있었으나 등 비늘에 흐르지 않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것은 익숙한 대기업의 로고였다. 대기업에서 전속 무당을 동원해 이 용을 만든 것이었다. 매켄지가 켈리로 이득을 취하듯, 무당들도 대기업에 고용되어 대기업의 자본주의적 욕망에 봉사하는 것이다. 은영이 계보를 이어 받은 바리데기는 무조신으로, 무녀의 원형이기도 하다. 치유과 퇴마라는 점에서 대기업의 전속 무당 역시 은영과 동종 업계 종사자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매켄지가 그랬듯, 이들의 가는 길도 은영의 길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은 켈리를 수집하여 팔았던 매켄지와 또 다르게, 자신의 능력을 타인을 해하는 데 사용했다. 자본력을 총동원해 사람을 해치는 주술을 행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도구가 된 것이다. 대기업의 전속 무당은 “주술용으로 비싸게 거래된다는” “아우슈비츠 골드”를 써서 학교를 혼란에 빠트리고, 그것을 용에 박아두었다. 은영이 이 대기업이 사주한 주술에 화가 난 것은 “내려서서는 안 되는 바닥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돈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하는 무당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대기업의 행태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영웅과 정반대이다. 권력에의 욕망에 따라 죄없는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들의 그릇된 욕망, 거기에서 나온 금을 빼앗은 사람들, 그러한 금에 서린 원한을 주술에 사용하려는 사람들, 이것을 돈으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욕망의 결합은 공공선을 철저히 파괴하는 악(惡) 그 자체이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사람, 선(善)에 대한 공감이 없다. 은영은 그릇된 욕망을 위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이들의 발밑에 저런 걸, 저 검고 비틀린 걸 심”으면서까지 “학교를 이따위로 이용”하며(268)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기업의 저열함에 분노한다. 학교와 아이들이 왜 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대체 대기업의 전속 무당은 왜 학교를 파괴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추락한 용에서 나온 교복 때문이다. 교복 주인은 “용의 등에 새겨진 대기업 집안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돌던 아이”로, 졸업 후 몇 년이 지

나 자살을 했다. 배제와 소문, 차별에 힘들었을 그 아이는 어른들의 욕심과 질투, 사회적 체면이 만들어낸 희생양이다. 그리고 이 아이의 낮은 마지막까지 이용당한다. 그 대기업에서는 아이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미칠 화를 걱정하여 아이의 교복을 넣은 용에 주술을 행해 학교에 심으려 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말이다. 그렇게 행한 사술(邪術)은 죽은 아이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하며, 주술에 걸린 용 때문에 선의 경계가 무너진 학생들의 피해와 아픔을 치유할 수도 없다. 대기업의 사술은 그 집안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지 죽은 아이나 학교 구성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매우 사적인 그릇된 욕망이다.

은영과 인표는 이 싸움에서 질 각오로 용과 맞선다. 은영과 인표뿐 아니라 로켓을 제공한 학생들까지, 이 영웅에게는 건강성과 명량성으로 무장한 연대가 늘 힘을 더해준다. 이들의 포기하지 않는 선의는 결국 용을 주술에서 풀어준다. 이들은 용에 박혀서 용에게 부정한 기운을 넣었던 금반지와 진주 귀고리를 빼내고, 용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용 안에 구겨진 교복이 녹고, 기관을 회복한 용은 어딘가로 사라진다. 영웅의 모험은 이렇게 일단락된다. 영웅과 조력자의 연대를 끊으려던 악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일단 이 모험의 세계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영웅과 조력자의 연대는 오히려 공고해진다. 이렇게 은영과 인표는 죽은 아이의 영혼과 이용당한 용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인도하는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이것 역시 이들의 선택이다. 괴물을 없애듯 용도 없애고 끝냈을 수 있지만, 이들의 친절함은 그 영혼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것은 교사의 역할인 동시에 바리데기가 했던 무조신의 역할이다. 바리데기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무조신을 선택했듯, 은영은 '보건교사'로 이 학교에 남는 '선택'을 한다.

## 5. 계속되는 영웅의 과업

우리의 옛이야기 속 여성 영웅들은 어떤 식으로든 당대 여성들의 꿈을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였다.<sup>35)</sup> 중요한 것은 여성 영웅 서사는 ‘당대인’들의 소망을 담지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적 욕망과 물신화가 팽배한 이면에 동시에 그것에서 소외되고 주변으로 밀려난 인물에도 주목한다. 대중서사 속 영웅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1세기의 대중이 원하는 영웅은 소외된 자, 약자, 주변화된 인물들의 편이다. 남들은 볼 수 없는 켈리를 보고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보건교사 안은영은 21세기가 바라는 영웅처럼,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친절’이라는 무기로 악에 맞서고 그들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21세기식 바리데기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영웅 은영의 모험은, 해방 이후 전체주의적 사고, 군국주의적 교육방식, 입시 위주의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폐단의 희생양이 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소설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겪는 일뿐 아니라 사회로 나가서 겪는 일까지, ‘학교’를 매개로 하여 보여준다. 교사가 영웅인 점, 모험이 끝나지 않는 점도 이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오리 선생 한아름」)혈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혈연 중심주의에 대한 전복적 사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레이디버그 레이디」), 안전불감증의 사회에 내던져진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산업재해를 돈 몇 푼으로 해결하고 덮어버리려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가로등 아래 김강선」), 역사 교과서 채택 문제를 통해 교과서를 채택하는 일에는 거대담론이나 제도나 자본의 문제가 고려대상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만 함을 이야기하

35) 전혜진, 앞의 책, 25면.

는 등(「온건교사 박대홍」) 비판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 보인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는 힘을 가진 안은영이라 해도 영웅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21세기식 여성 영웅 안은영은 그렇게 소외되고 주변화 되면서 위로받아야 할 때 위로받지 못하고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는 존재들, 영혼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공감하며 위로한다. 무한 경쟁만 존재하고 위로가 부족한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웅은 무조신 바리테기와 같은 영웅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과 평안을 담당하고(‘보건’) 바른 길로 이끄는(‘교사’) 보건교사 안은영은 바리테기의 계보를 잇는 여성 영웅이다.

“영웅의 여정”에서, 영웅은 보상을 가지고 귀환을 하는 것으로 모험이 끝나지만, 은영의 모험은 끝나지 않는다. 바리테기가 무조신이 되어 불쌍한 영혼과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계속 위로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은영 역시 학교라는 모험의 세계 속에서 ‘보건교사’로서 영웅의 과업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의 사건사고는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로 같을 될 것들이 아니다. 럭키와 혼란이 벌이는 일들이나 방석 훔치기, 교과서 채택 문제,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친구관계와 가족의 문제 등은 사회적 문제들이기도 하다. 크레인 사고와 같은 학교를 나간 청년이 맞닥뜨리게 되는 사회문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거나 거대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되어 개개인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은영의 모험은 초자연적인 것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속물적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과의 싸움이다. 은영과 인표의 모험은 미봉책으로 덮이고 제대로 매듭짓지 않는 문제들, 사회적 모순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행하는 친절이 결국 상처입은 영혼을 위로한다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영웅이 행해야 할 공공선의 추구이다.

| 참고문헌 |

-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2판), 민음사, 2020.
- 강혜선, 「서사무가(敍事巫歌) 〈바리공주〉의 여성적 리더십 연구」, 『돈암어문학』 25, 돈암어문학회, 2012, 103~124면.
- 김창현, 「한국 여성 영웅 서사의 미학적 특징에 대한 일고찰」, 『인문과학』88,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37~60면.
- 김 현, 『김현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을유문화사, 2022.
- 노대원, 「소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음과모음』 31, 자음과모음, 2016, 386~399면.
- 박형준, 「영웅서사의 해체와 사건의 존재론」, 『오늘의 문예비평』 107, 오늘의문예비평, 2017. 겨울, 53~66면.
- 서수정, 「현대 슈퍼히어로 지형도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71,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23, 335~362면.
- 송성욱, 「조선시대 영웅소설과 슈퍼히어로」, 『고소설연구』 49, 한국고소설학회, 2020, 5~40면.
- 이다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연구」, 『어문연구』 108, 어문연구학회, 2021, 171~194면.
- 전영돈, 「시대별 영웅서사의 스토리텔링 변화 연구」, 『디지털영상학술지』 18(1), 한국 디지털영상학회, 2021, 81~114면.
- 전혜진, 『규방의 미친 여자들』, 한겨레출판, 2023.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8.
- 한정훈, 「OTT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에서 구현된 인간의 욕망 문제와 해법의 윤리」, 『문화와 융합』43(12),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749~769면.
- 마크 웨이드 외, 하윤숙 역, 『슈퍼 히어로 미국을 말하다』, 잠, 2010.
- 리처드 로티, 김동식·이유선 역,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 사월의책, 2020.
- 조지프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18.
-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이윤기 역, 『신화의 힘』, 21세기북스, 2020.
- 크리스토퍼 보글러, 함춘성 역,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제3판, 비즈앤비즈, 2022.

「정세랑 작가 “「보건교사 안은영」은 나의 장난감 칼과 비비탄총」, 『연합뉴스』,  
2020.10.9.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9055300005?input=1195m>  
(2023-07-27))

<Abstract>

## 21<sup>st</sup> Century Female Hero Narrative

– Focusing on Jeong Se-rang's *Health Teacher Ahn Eun-young*

Jung, Ha Nie

This paper is a study that examined *Health Teacher Ahn Eun-young* by Jeong Sa-rang from the perspective of female hero narrative. In this novel, Ahn Eun-young, a health teacher who has the ability to see and eliminate jelly, a trace of desire that others cannot see, protects the school and students with her helper Hong In-pyo, a Chinese literature teacher. Ahn is a hero who inherits the genealogy of a female hero named Baridegi, who became a shaman god according to her choice and helped many souls. This novel shows the process of choosing a life that wins over bad things with kindness like Baridegi. The kindness of a hero who is a minority (woman, health teacher) and accepts others with broad understanding and empathy is the core of the Korean-style female hero narrative. Ahn is not a hero who acts alone, but adventures with helper(disabled people, Chinese literature teacher), solidifies with others, and settles in the community. This school is a miniature version of society, and it is an unknown world where long-stacked oppression can explode at any time. The problems they face at school range from youth issues to capitalist desires. Eun-young's biggest weapon, which has altruism and a desire for public good, is kindness. Eun-young's adventure is not a battle against any supernatural. Eun-young and In-pyo's adventures allow us to face real problems that are covered with stopgap measures and not properly concluded. This shows that what a modern

hero have to confront is not a battle against supernatural things, but a battle against social contradictions, and that kindness that sympathizes with other people's pain eventually soothes the wounded soul. As a result, Ahn Eun-young, a modern hero, continues the lineage of a Korean female hero narrative that began with Baridegi.

key words: *Health Teacher Ahn Eun-young*, female hero narrative, Baridegi, a shaman god(巫祖神), minority, kindness, curing and caring, solidarity

투 고 일: 2024년 12월 6일

심 사 일: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2024년 12월 27일